

- 『더 좋은 일자리, 함께 만드는 인천』 -

## 인천시 「일자리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」 제9차 회의 결과

all ways INCHEON  
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

 인천광역시  
(일자리경제과)

## 「일자리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」 제9차 회의 결과보고

### 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'20.5.15.(금) 15:00~17:30 / JST제물포스마트타운(13층)
- (참석위원) 위원 13명 중 9명 참석
  - ▶ 배석(2) : 사회적경제과장,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위원회담당
- (주요내용)
  - 코로나19 관련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보고·논의
  - 포스트 코로나 대비, 사회적경제 분야 대응방안 논의 등

### □ 주요 논의 내용

#### ① 코로나19 관련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

- (금융지원) 중기부(市 청년정책과)의 스타트업 모태펀드 중 소셜벤처,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 고려(유○○ 위원)
- (공공구매) 부서장 성과지표 반영 등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, 다양한 마케팅 전략 고민 필요
  - (인천형 상사) 대구·경북 무한상사처럼 제품을 마케팅, 판매하는 전담조직 신설 필요(위원장)
  - ⇒ 현재 지역특화사업으로 '인천형 종합상사'를 계획중(간사)
  - (서비스몰) 상품 정보제공, 검색·채팅 가능한 공공구매 폐쇄몰로, 구매자에게 접근용이한 온라인 판매장 준비중(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)
  - (더 담지)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·용역 오프라인 판매장으로 홍보·마케팅에 적극 참여하는 역할 수행(사회적경제과장)
  - (스타트업) 마케팅 전문 사회적기업 스타트업을 발굴·육성(유○○위원)

## ②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사회적경제분야 대응방안

- (지역공동체·재가돌봄 일자리) 하나의 마을을 선정하여, 재가돌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(한○○ 위원, 위원장)
  -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맞벌이 육아 가중 및 돌봄공백 발생,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개발 필요(일자리와 복지 연계)  
ex. 방과후 강사 등 코로나 피해업종 → 재가돌봄 서비스 인력으로 활용
  - 다만, 복지차원의 돌봄시장이 확대될 경우 돌봄서비스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오히려 위축될 우려(사회적경제과장)
- (성장인프라 확충) 비즈니스 모델 발굴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·육성할 수 있는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이 우선(유○○ 교수)  
ex. 상상플랫폼 인프라 공간, 콘텐츠 및 액셀러레이터 지원, 펀드 조성 등
- (제도·시스템) 온라인 총회 등이 가능토록 제도 완화, 지역별로 양방향 소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필요(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)
- (공모사업) 코로나19 관련 사회문제 해결,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필요(간사)  
⇒ 현재 '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모사업' 심사 단계(사회적경제과장)
- (기타의견)
  -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분석 필요(위원장)  
ex. 소독청소(사회적기업) → 방역으로 확장
  - 사회집단 소규모화에 따른 제도·정책적 접근 필요(심○○ 위원)
  - 신뢰관계에서 생산-소비를 이어주는 플랫폼에 대한 고민(이○○ 위원)  
⇒ 주민자치회가 마을 플랫폼의 역할, 지역사회의 네트워크화
  - 마을기업, 사회적기업 간 연결고리 장치 및 지역을 디자인하는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필요(이○○ 위원)
  - 유튜브 등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언택트 마케팅 필요(박○○ 위원)

## □ 향후 계획

- 일자리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개최 : 6~7월중 (기존 6.2일→연기)
- 일자리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 : 6월중